

팔로우업 사업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JENESYS)'을 통해 방일단 경험자의 동창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일본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유지를 촉진하고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이해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에 걸쳐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한국 고등학생·대학생·사회인 등 총 510명

【일정】

날짜 개최장소	내용
1회차 6월 21일(토) 장소: 부산시내	【일본과 각국 간의 인연 소개】 도모나가 히로시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 소장 이시가야 아키히데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소장 【참가자 활동 보고】 동창회 조직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약칭: KJAFOB)' 동창생 대표 【순서】 ① 일본관련사업조직 소개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② 동창생 활동 보고 (KJAFOB 및 동창생 대표) ③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소개 ④ 주한 일본 기업·일본 취업 관련 설명
제2회차 8월 7일(목) 장소: 서울시내	【일본과 각국 간의 인연 소개】 후지타 에쓰오 CLAIR(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 【참가자 활동 보고】 동문별 그룹 성과 발표 【순서】 ① 그룹별 성과 발표 ② 단장·부단장 강평 ③ 일본관련사업조직 소개 (CLAIR 서울사무소) ④ 동창생 간 교류 (일본 방문지, 방일단의 추억을 2인1조로 발표)
제3회차	【참가자 활동 보고】

8월 21일(목) 장소: 서울시내	동창생 그룹별 성과 발표 【순서】 ① 그룹별 성과 발표 ② 단장·부단장 강평 ③ 동창생 간 교류 (동일본대지진 복구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제4회차 12월 19일(금) 장소: 서울시내	【일본과 각국 간의 인연 소개】 후지타 에쓰오 CLAIR(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 시미즈 도시코 북도호쿠3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 소장 도모나가 히로시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 소장 이나미네 나쓰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 【참가자 활동 보고】 동창생 대표 (JENESYS, 국비 유학, JET 프로그램) 【순서】 ① 동창생 대표 활동 보고 (JENESYS, 국비 유학, JET 프로그램) ② 북도호쿠3현·홋카이도, 나가사키현, 오키나와현 지역 특산품 소개 ③ 참가자 간 교류
제5회차 2월 11일(수) 장소: 서울시내	【일본과 각국 간의 인연 소개】 니시구치 사토시 CLAIR(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도쿠시마현 주재원) 【참가자 활동 보고】 동창생 그룹별 성과 발표 【순서】 ① 그룹별 성과 발표 ② 단장·부단장 강평 ③ 일본관련사업조직 소개(도쿠시마현)
제6회차 2월 21일(토) 장소: 제주시내	【참가자 활동 보고】 동창생 대표 일본 측 교류 참가자 (방한단 동창조직 대표 포함) 【순서】 ① 동창생 활동 보고 (동창생 대표) ② 2025년도 한국청년방일단(제5단) 일본 측 교류 참가자 발표 ③ 방한단 동창조직 ‘Japan-Korea Alumni Forum(약칭: JKAF)’ 발표
제7회차 2월 25일(수) 장소: 서울시내	【참가자 활동 보고】 동창생 그룹별 성과 발표 【순서】 ① 그룹별 성과 발표 ② 단장·부단장 강평 ③ 방일 소감 발표

제8회차 3월 7일(토) 장소: 부산시내	【일본과 각국 간의 인연 소개】 하라다 아타루 시모노세키시 부산사무소 파견직원 김경일 쓰시마 부산사무소 부소장 이상하 나가사키현청 국제교류원 문미경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직원(JET 프로그램 경험자) 【참가자 활동 보고】 동창 조직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약칭: KJAFB)' 동창생 그룹별 성과 발표 동창생 대표 (영상 메시지) 【순서】 ① 동창생 활동 보고 (KJAFB) ② 그룹별 성과 발표 ③ 2024년도 홈스테이 가정의 영상 메시지 ④ 동창생 활동 보고 (영상 메시지) ⑤ 일본관련사업 조직 소개 (시모노세키시, 쓰시마시, JET 프로그램)
제9회차 3월21일(토) 장소: 부산시내	【참가자 활동 보고】 동창생 대표 동창생 그룹별 성과 발표 【순서】 ①동창생 활동 보고 (동문 대표) ②그룹별 성과 발표 ③단장·부단장 강평

2. 기록사진

	
2025년6월21일 【활동보고】 동창조직 KJAFB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	2025년8월7일 【기조강연】 CLAIR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일한 자치체(지자체)교류에 대하여’

	
2025년12월19일 【활동보고】 JENESYS동창생	2026년2월11일 【기조강연】 CLAIR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지역의 매력 소개’
	
2026년2월21일 【성과발표】 JENESYS동창생	2026년3월7일 【기조강연】 쓰시마부산사무소 ‘지역의 매력 소개’

3.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대학생 (도쿠시마현 홈스테이)

이번 팔로우업 프로그램은 일본 방문단의 활동을 단순한 일회성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연결 지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도쿠시마 현에서의 교류 및 기업·기관 방문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닌 ‘글로벌 현장에서 배우는 경영과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이시카와현 홈스테이)

다양한 입장에 계신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앞으로도 더욱 좋은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 한국 직장인 (홋카이도 홈스테이)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일 교류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미야기현 홈스테이)**

2024년 여름, 같은 목표를 가슴에 품고 일본을 함께 걸었던 순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자리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 리포터들의 모습을 보며, 그때의 경험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문화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오키나와현 홈스테이)**

다른 친구들의 발표와 소감을 들어보니, 각자가 교류와 배움의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는 것이 전해져 매우 감탄했습니다. 액션 플랜도 훌륭한 것들이 많아 저 역시 그 자세를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번 일본 방문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감사하고도 소중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며 계속 배워 나가고 싶습니다.

◆ **한국 대학생 (후쿠이현 홈스테이)**

다양한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방일단 여러분의 소감과 액션 플랜을 듣고, 저 자신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일본 측 소감 (발췌)

◆ **동창회 실시 협력 기관 (도쿠시마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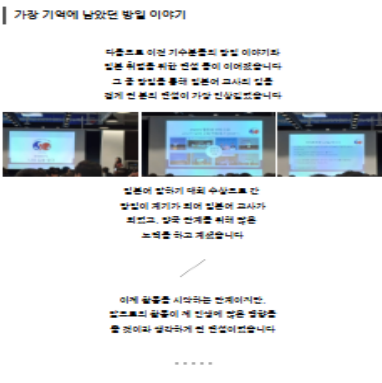
한국의 젊은 분들이 도쿠시마의 농산촌에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소규모 지자체의 활동을 시찰하고 체험하는 모습을 전해 듣고, 한일 교류의 확산을 느꼈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의 보고를 통해 저 역시 평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도쿠시마의 매력을 다시금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일한, 특히 지방 간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동창회 실시 협력기관(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번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고등학생) in 부산」은 JENESYS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을 방문한 고등학생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교류를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에서의 활동과 느낀 점을 공유하며, 한일 교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JENESYS 선배의 경험담과 메시지를 통해, 참가자들은 앞으로 다양한 한일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참가자들에게 오래 기억될 뜻깊은 경험으로 남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이어져 한일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5. 참가자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가장 기억에 남았던 방일 이야기 다들 일본에 가면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물어봐서 일본 취업준비생 친구들이 물어봐서 그 중 일본을 통해 일본의 크고 작은 일본의 문화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일본에 방일하기 위해 수달초로 간 일이 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크고 최고의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일본의 활동이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방문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할 아름답게 내년에라도 동창회 행사도 꼭 개최하고 싶습니다!
2025년 6월 25일 (블로그) 한일 관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개인적인 목 표나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고, 내년에 도 또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2025년 8월 10일 (블로그) 2015년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분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일본 방문단에서의 추억이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매년 동창회에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일본 방문단 활동은 청춘의 잊 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 련 행사에 참여하며 동료들과의 인연을 소중 히 간직해 나가고 싶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니시니혼신문) “청년 방일 사업 참가, 역대 한국인들이 부산 에서 동창회 개최” JENESYS 참가자 외에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인 유 학생을 포함한 120명이 모여 일본에서의 활동 과 추억을 되새기며 교류를 다지는 모습이 소 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9일 (연합뉴스)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청소년 교류 행사” 부산·영남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교류하는 ‘JENESYS 한국 청년 방일단 동창회’가 개최 되어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젊은 세대의 교류 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되었습니 다.

6. 초빙 참가자들의 현재 일본과의 연계 및 활동 내용 사례 소개

	
활동 사례 1: 서울 동창생 2023년도 청년 방일단 일원으로 아오모리현에서 홈스테이를 경험한 동창생이 현재 돗토리현의 한국어 ALT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내 공립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지역 내 한일 교류 통역 및 번역, 자매결연 업무 지원 등에 참여하며 한일 간 가교 역할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례 2: 부산 동창생 부산 지역 선발 동창생들이 동문 조직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약칭: KJAFB)'의 핵심 멤버로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방한 동창 조직 'Japan Korea Alumni Forum(약칭:JKAF)'의 멤버들과 함께 대면으로 차세대 회의 '2025 한일 차세대 회의 ~SNS를 통한 사회 문제와 청년의 미래~'를 개최했습니다. 그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널리 발신했습니다.

실시단체명: 공익재단법인일한문화교류기금